



##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및 2014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개최

주제 - '변화와 도전: 지속가능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방향'  
 해외 원전 선진국 등 8개국에서 600여명 참가 성황



개회식 전경



조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종경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조석 한국수력 원자력(주) 사장)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공동 주최로 4월 16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다.

'변화와 도전 : 지속 가능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원전 선진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태평양원자력협회의회(PNC),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INSC) 등 국제기구에서 정책 입안자, 학계, 연구 및 산업계 인사 등 국내외 원자력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달라진 시대 정신에 따라 원자력도 달라져야 하며, 지금까지 경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가 새로



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한 국내의 주요 인사



2014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개막 테이프 커팅

운 변화를 다짐하고 더욱 희망찬 미래로 도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가 원자력 안전, 폐로 및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국내의 원자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고, “원자력 안전 강화를 토대로 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개회세션의 기조강연에서는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현황과 전망’ (홍두승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 ‘원자력 연구 개발 현황과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의 활동’ (스즈키 아츠유키 PNC 회장), ‘영국의 원자력산업 현황과 전망’ (헤르겐 헤이 (Hergen Hays)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원자력개발국장), ‘미국의 원자력산업 현황과 전망’ (도널드 호프만 (Donald R. Hoffman) 미국원자력학회 (ANS) 회장)이 발표되었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국민 원자력 : 소통과 상생의 여로’ (PANDORA (Public Aware Nuclear: Drive, Outreach, Reclaim, Attend!))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장, 이정훈 <신동아> 편집국장, 일본 니노카타 히사시 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 (INSC) 회장, 오카모토 고지 동경대 교수, 미국의 Mimi H. Limbach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수석부회장, Clayton Scott Schneider Electric Chief Nuclear Officer, Robert Buechel 웨스팅하우스 국제원전연료전략

담당 부사장, Corey McDaniel 미국원자력학회(ANS) 국제위원회 위원장, 캐나다의 Heather Kleb 캐나다원자력협회(CNA) 부회장, 독일의 Hans-Michael Kursawe TUV-SUD 상무이사 등 5개국에서 11명의 원자력 전문가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4월 17일에는 ‘원전 설계, 시공, 제작 및 건설’, ‘원전 운영, 유지 보수, 폐로 및 해체’, ‘원전연료 및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원자력 미래 기술’ 등 총 6개 세션에서 원자력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이번 연차대회와 병행하여 원자력산업회의의 주최, BEXCO 주관으로 ‘2014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이 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AREVA, Westinghouse/ Toshiba, TUV SUD KOCEN 등 국내외 80개 원자력 관련 기관과 회사가 참가한 이번 국제원자력산업전에는 230개 부스가 마련되어 각사가 개발한 원자력 기자재 등의 성과물 현황 전시와 함께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이 펼쳐졌다.

또한 대회 기간중 ‘원자력 기업 공급자 등록 및 동반 성장 사업 설명회’, ‘원자력 수의계약 기자재 전시 설명회’, ‘원자력 R&D 성과 산업체 이전 가능 기술 설명회’, ‘원자력 품질보증 교육’ 등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2~3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 개최

원자력연구원 서용칠 책임기술원 등 8개 개인 · 단체 수상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원자력 기술 향상에 기여



제21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수상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주관하는 제21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제14회 원자력 국제협력 유공자 표창, 그리고 2014 한국원자력공로상 시상식이 4월 16일 오전 10시 부산 BEXCO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제29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세션과 함께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원자력기술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용칠 책임기술원, △최정석 한전 KPS(주) 팀장, △정완모 현대건설(주) 부장, △문태엽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오은종 두산중공업(주) 차장, △이순성 비엔에프테크놀로지(주) 부사장 등 6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한국엔지니어링(주) 등 2개 단체가 수상했



제14회 원자력 국제협력 유공자 표창 수상자



2014 한국원자력공로상 수상자

다. 시상식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하였다.

한국원자력기술상은 원자력산업계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원자력산업 진흥 및 원자력 기술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후보 대상자를 추천받아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 국제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시상하는 원자력 국제협력 유공자 표창(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은 △Kirsten Bauman 주한미국대사관 참사관을 비롯, △황교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최운서 한국전력공사 팀장, △김종두 두산중공업(주)부장, △안재욱 한전원자력연료(주) 책임연구원, △최영호 한전원자력연료(주) 과장, △서상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 부장, △박민철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팀장, △한범수 이비테크(주)대표이사, △김형철(주)자비스 대표이사 등 11명이 받았다.

한편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산·학·연 협력 증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한국원자력공로상(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상)은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진태은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처장, △정동현 웨스팅하우스코리아 사장, △심규열(주)포뉴텍 부사장 등 4명이 수상했다.

## 한국원자력기술상 수상자 공적 요지

### ■ 개인



#### 서용철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

‘중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및 정비용 경량로봇’ 국산화를 주도하여 신고리 제2발전소 3, 4호기 및 UAE 수출 원전에 적용 예정이며, 5년간 약 500억원의 수입 대체 비용 및 기대 수익에 기여하였음. 공적 기간 29년 1개월.



#### 최정석 / 한전 KPS(주) 팀장

풍부한 원자력발전소 정비 경험과 탁월한 기술 개발 활동을 통해 원자력 발전 및 정비 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음. 공적 기간 30년 7개월.



#### 정완모 / 현대건설(주) 부장

1983년 현대건설 입사 이래 30여 년간 원자력발전소 시공 및 기술관리 분야에서 종사해오면서 원전 시공 기술 완전 자립, 시공 기술력 증진 및 공기 단축으로 원전 경쟁력 제고 등에 힘써왔으며, 현재 신고리 원자력 3, 4호기 시운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완벽한 품질과 공기 단축을 통해 원전 건설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공적 기간 30년 7개월.



#### 문태엽 /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장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추진하여 해외 수출 기반을 강화하였고, 핀란드 원전 수출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요구에 맞춘 최적 기술 입찰을 제안하는 등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공적 기간 16년 8개월.



#### 오은종 / 두산중공업(주) 차장

원전 주기기 제작을 위한 기술 개발, 자재 국산화, 장비 자동화를 통해 국내 원전 제작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크며, 다양한 품질 개선 활동 및 기술 지도를 통해 원전 주기기의 수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음. 공적 기간 18년 2개월.



#### 이순성 / 비엔에프테크놀로지(주) 부사장

원자력공학 전문 지식과 원자력연구원에서의 전산 계통 설계 분야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프로세스 플랜트 운영 관리 S/W 시스템 분야 제어 및 감시, 운전 정보, 불시정지 원인 추적, 예측 진단(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기술 국산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다수의 원자력발전소 사이트에 설치 적용함으로써 발전소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 공적 기간 13년 4개월.

## ■ 단체

###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이종호 원장

원전 기기(부품) 성능 검증 시험 공인기관으로 가동 중지된 ‘신고리/신월성1, 2 호기 제어케이블 LOCA 환경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력대란을 예방하였고, 국내 최초로 밸브·펌프 성능 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국산 원자력 등급 펌프의 성능 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인프라를 구축하여 213 품목(28,780)을 자체 수행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책임과 핵심 기술 고도화를 선도하는 데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공적 기간 13년.



이세엽 대표이사

### (주)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해외 업체들이 독점해온 방사성폐기물의 폴리머 고화 기술 및 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 승인을 받아 원자력법에 규정된 원자력발전소 운영 요건을 만족시키는 등 기술 자립을 달성과 외화 유출 방지에 기여함. 공적 기간 18년 8개월.

## \*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

### 단체 회원

#### (주)아리텍(RETECH CO.,Ltd)

- ◆ 대표 : 김원태(金元泰)
- ◆ 업태(종목) : 발전 설계 용역 외
-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타워동 605호
- ◆ 연락처 : 031)8065-5840

#### 석원산업(주)

- ◆ 대표 : 한봉섭(韓鳳燮)
- ◆ 업태(종목) : 발전 설비 보수 공사 외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현대벤처빌 307호
- ◆ 연락처 : 02)2017-8114

### 평생 회원

한봉섭(韓鳳燮) / 석원산업(주) 사장